

2017. 2. 12. 고야 선교 11차 5일차 보고

팀원 : 최준기(팀장), 김미수, 최기쁨, 김영산, 백혜경, 왕정숙, 유정란, 이지형, 이강자, 이은민, 정병욱, 박설희, 송민환, 오춘식, 이정근, 신명화, 정하나, 이은수, 이다운 이상 19명 + 노정윤, 정민(선교사, 통역)

1. 일정

- 가. 아침식사, 청소
- 나. 어린이 예배(어린이 찬양, 율동)¹⁾
- 다. 대예배(소개, 찬양, 간증 - 유정란, 부채춤)
- 라. 선교보고(이지형 집사²⁾)
- 마. 저녁예배(찬양, 간증 - 이은수, 부채춤)
- 바. 서프라이즈 생일파티(김미수, 왕정숙, 후미키, 준비 ; 고야교회)

오늘은 아침부터 은혜와 축복이 넘쳤습니다. 주일날 주신 무지개와 오키나와의 하늘. 정말 오늘 저녁 예배 때의 성경말씀이었던 시편 113편이 생각나는 아침이었습니다.



2. 어린이 예배

어린이들 많이는 없었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했으니 앞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오겠죠?

율동찬양하느라 고생하신 은수 자매, 정근 형제 고생 많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노래 불러 주신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1) 모에르, 천국의 마치 - 피피티 작업 : 유지

2) 사실 삼일교회 대학청년진 부장집사님. ^^;;



3. 대예배

삼일교회를 위한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유정란 집사의 간증, 그리고 부채춤 공연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예배 전 간단한 특송연습과 부채춤 연습도 있었습니다.



4. 피자과 함께 하는 삼일교회 선교보고

가. 장소 : 가나홀

나. 참석 : 삼일교회 선교팀원, 노정운 선교사, 고야교회 성도 분들
다. 보고

1. 삼일교회 선교 1994년 제주도로 시작.

1) 국내 선교, 2) 특별 선교, 3) 해외 선교

2. 선교 준비

담당 목사, 담당부장집사, 준비팀, 매회 모집 진행

선교의 열매 - 교회 목회 자들의 헌신이 많음

3. 국내지역선교

복음화율 낮은 지역 중심 선교

주요활동 내용.

4. 국내특별선교

수도권선교, 농어촌선교, 군선교.

5. 해외선교

1998년 일본선교가 시작.

6. 선교의 열매

구체적인 통계는 없고, 열매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 열매가 선교팀의 헌신때문인지 다른 분들의 헌신때문인지 알 수 없음. 선교 열매는 간증으로 준비.

통영 - 200명 신도 불어남

장흥 - 무당이 할머니인 아이들

농어촌선교 - 10년 이상 계속

해외 선교

1) 대만선교 - 우상철거

2) 일본선교 - 요코야마 : 한국어까지 배워서 통역을 하고 교회에서 한국어 학당을 운영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함.

3) 캄보디아선교 - 이혼한 엄마를 만나 같이 살게 된 자매들이 있었음.

7. 최종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다양한 선교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

라. 자유질문

1) 히게시 상 - 캄보디아, 대만 선교, 통역은 어떻게?

답변(이지형 집사) :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역을 섭외해 가는 경우도 있고, 현지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성도가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나나 상 - 이슬람 국가도 있는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까지 한국, 선교 통역이나 여러 나라 가는데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신명화 자매) : 비자 문제는 없고, 체크는 관광으로 합니다.

3) 고야교회 성도 - 선교 배후에 중보기도 하는 팀이 있는 거 같은데 선교 팀이랑 어떻게 관계 맺는지 여부.

답변(최준기 팀장) : 선교 떠나기 전에 기도 카드 만들어서 나눠줌. 기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선교 프로그램 있으면 광고 하고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함. 교회에서 예배 때 함께 기도하고 교회 섬기는 선교 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 함.

4) 히게시 상 : 교회에서 오키나와 오는 그룹들 일본 오는 그룹 들 모임 있는지 여부.

답변(최준기 팀장) : 삼일교회가 선교 많이 가르므로 선교 그룹들 많기 때문에 자신이 휴가가 안 되면 오키나와 가기도 하고 대만도 가기도 한다. 딱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니어서 그 교회 섬기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어느 교회 가는 건 자유.

재답변(히게시 상) : 오키나와 위해 기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는데 어렵요.

5) 목사님 - 몇 명 정도 신도들이 참가하고 있는지, 시기적으로 삼일교회 여름과 겨울 오고

있지만, 1년을 거쳐 매월 나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고야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답변(이지형 집사) : 교인 10000명에서 11000명. 국내 지역 선교는 1년에 3000명 정도 간다. 국내 특수선교는 1300명 정도. 해외 선교는 두번씩 가기 때문에 2년에 1600명 정도 참가.

해외 선교와 지역선교는 여름과 겨울만, 국내 특수선교 중 수도권 선교는 매 주.

답변(이지형 집사) : 세 번째 질문은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선교는 언제든지 아무때나 참가할 수 있다.

답변(최준기 팀장) :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있는데 한 사람이 국내 선교 갔다가 해외 선교 바로 가기도 한다. 교회 11,000여 명 중에 선교가는 인원에는 중복된 인원도 있다.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6) 목사님 - 국외 선교나 해외 선교도 가족이 참가하는 곳 있는데, 교회에서 원하는지, 아니면 제한을 두는지 여부.

답변(이강자 집사) : 결혼하기 전부터 선교를 했구요. 남편하고는 일본선교 후에 결혼했음. 계속 선교를 하다 보니 딸도 데리고 와서 선교. 처음에는 자녀를 데려오는게 어려웠지만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많은 가정들이 아이 데리고 참가하고 지금은 교회 같은 경우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를 오히려 더 지원. 국내 선교 같은 경우 아이 데리고 임신하고 다감. 아마 청년 때부터 그런 거 같은데, 자녀들을 그런 자리에 데리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있음. 저희 가정도 선교갈 때마다 자녀를 데리고 갈 생각.

7) 모모코상 - 각 지역에 따라 수단 도구가 좀 다른데, 대상이 청년으로 하는 선교사역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국에서는 군대가 있는데, 군대 안으로 선교 가는 거 같은데, 들어가는 데 어려움 없는지

답변(이정근) : 군선교는 등록기간에 미리 인적사항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군대에 미리 통보하고 보안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고 기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선교 할 수 없다. 군 부대 선교하러 들어가려면 핸드폰 전부 제출해야 함. 군 내에 있는 군 목사님이랑 군종장교 통해 들어감.

답변(최준기) : 군선교가 청년 선교에 포함되고, 대학교 전도, 새학기 때 신입생들 위주로 전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입학식 날짜를 알아둬. 그래서 고야에서 하는 파티 날짜를 정하고 찌라시를 나눠주고 파티를 함. 새학기 때나 2학기 때도 똑같이 함. 4주 간 나눠줌. 학기 중에 삼일교회 청년들이 퇴근 후에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나눠줌. 그렇게 전도하는데, 관계를 전도. 예수님 증거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서 선교.

해외 선교나 국내선교는 연계 대상 교회면 거기에 맞게 찬양 준비하거나 음식 준비함. 특별히 프로그램 없이 사영리 책자 들고 길가면서 예수님 물어보고 들어보면서 복음 증거.



5. 저녁예배까지 잠시 휴식

김성한 목사님 깜짝 방문(어려운 발걸음 감사합니다. 비싼 게스트하우스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각자 휴식







6. 저녁예배

역시 삼일교회의 스페셜 무대가 있었습니다.

찬양, 간증-이은수, 부채춤

사진은 채워넣어야겠습니다. 기억나시죠? ^^ (정하나 자매 사진기)

특히, 오늘 저녁예배에는 온천에서 전도하셨던 분(미치코 상, 김치를 좋아하십니다.)이 또 오셨습니다. 정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 저녁 예배 후 생일파티

(김미수, 후미키, 왕정숙)

생일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못 뵈던 분들 다같이 봐서 좋았습니다.

온천에서 전도하셨던 분(미치코 상)이 예쁜 붓글씨를 선물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8. 나눔

가. 이은수 - 다운이 앞이라 부담 덜음. 간증했었는데, 마지막 부분 ‘고야교회 성도분’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라고 바꾸겠습니다. 간증 준비할 때랑 다운이랑 옥상에게 얘기했는데 주제넘게 나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다(아무도 그런 생각 한 사람 없어요. 칭찬 자자 ^^). 두번째 특송 부를 때 성도들 표정을 훑어 보았는데, 낯을 놓고 있었음. 이런 큰 무대에서 뭔가 말할 때(떠들때) 빈공간에 예수님 서 있다는 마음으로 특송을 하자고 마음먹었는데, 유리 문 앞에 예수님 서계신다고 생각하며 특송함. 마음을 붙잡아주심. 유지상이 쇼상에 대해 어제 얘기했는데, 듣고 같이 오늘 놀았다. 놀 때 분위기 자체가 따뜻한 분위기. 쇼상이 그 안에서 잘 어울리는 걸 보았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라고 했는데, ‘사랑의 일부’ 알아가면 좋겠다. 기도제목 이따 생각나면 얘기하겠다.

이은수 기도제목 : 어젠가 원반 던져 팔 다쳤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거예요. 부채춤 할 때도 팔올릴 때 아팠음. “제 어깨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나. 이다운 - 부채춤을 끝낼 수 있어 좋았다. 부족한 팀장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키나와 주일 예배는 경건한 찬양 부르는 거여서 예배 끝나고 은수언니랑 신나는 찬양, 느린 찬양, 직접 만든 찬양 다 불렀다. 직접 피아노 연주도 하고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찬양했다. 밖에 나가 산책하면서 찬양 부르고 했는데, 아침에 무지개도 뜨고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생각 하며 찬양 불렀다. 오늘 말씀에 시편 113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잘 나누었다. 결국 내가 찬양한 이유는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으로 인해 기뻐서 찬양 드리는 거 아닌가. 찬양 올리는 계기 되었던 듯. 쇼하고 같이 놀았는데. 쇼도 우리랑 다를 게 없었다. 같이 하니깐, 좋았다. 모임 자체 분위기 너무 좋았다.

다. 정병욱 - “예의”를 차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행복했고, 속으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꼭 참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팀장님... 정말 기쁨이까지 데리고 와서 힘들텐데, 기쁨이 감기 걸려 더 힘들텐데 팀원들 챙기랴, 일정 챙기랴, 기쁨이 챙기랴, 고야성도들 챙기랴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말씀의 능력... 멋져요(어제 “켄타” 부분 참조). 미수 자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변호사님이라 목소리랑 행동이라 웃음이라 눈매라 너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그 분도 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조용조용하시고 느긋하시고 군세신데 비슷하십니다. ㅎㅎ 기쁨이... 아빠 그만 때려요. ^^ 이지형 집사님... 오늘 선교 보고 정말 교수님처럼 너무 잘 하셨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또 팀장님만큼 은민이 때문에 바쁘셨을텐데 열심히 은민이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강자 집사님. 오늘 선교에서 나온 목사님 질문에 좋은 대답.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최고였어요. 은민이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많이 쓰셨을텐데 고생하셨어요. 은민이... 은민인 뭘 해도 이쁘더라. ^^ 백혜경 집사님. 주방팀에서 조용히 묵묵히 최고의 요리 주방팀과 함께 만드시느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으시거나 발견하시는 선교가 되셨나요? 왕정숙 집사님. 생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것저것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주방팀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 보내드리며, 지지미 뒤집기. 최고였습니다. 유정란 집사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체험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 감사했습니다. 체험 간증의 현장 ^^ 앗, 김영산 집사님. 이제서야... ㅠㅠ 그래도 보여주신 영어실력 정말 짱이었습니다. 영어 생활 통역 하셔도 되겠어요. ^^ 이정근 형제. 체육선생님으로 해외 선교 처음임에도 성심성의껏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레크리에이션 기억에 남아요. 몰래카메라 ㅎㅎ 잘 찍는 거 같아요. 송민환 형제.. 촌데레. ㅋㅋ 개구쟁이. 그런데 따뜻한 가슴이 살아있는 분. 누구보다 고야교회 분들을 잘 아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고야교회 선교 계속 함께 해 주실거죠? 오춘식 형제. 혼잣말 많이 하지만 착한 사람. (송민환 형제가 나쁜 남자라면 오춘식 형제는 착한 남자) 오송 형제 좋아요. 안 보이는 곳에 저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요. 정하나 자매.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이름. 하나짱의 주인공. 고야교회에서 하나짱 모르면 간첩일듯. 그만큼 고야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박설희 자매. 친구. 말 놓는건가? 이번 선교의 주인공, 나중에 간증도 부탁해. ^^ 신명화 자매. 누구보다 남들이 신경쓰지 못한 ‘사람’을 신경써주신 분. 고마워요. 이은수. 이다운. 은수, 다운, 앞으로도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면 좋겠어요. 부러워요. 빠트린 분 있나요? 그럼 스미마센.

라. 이지형 - 쇼군은 정상이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함께 선교해서 기쁘고 즐거웠다. 이런 선교팀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자세한 건 내일 간 다음에 하도록 하자 (누가 간 다음?).

마. 이강자 - 보고서에 “자족”이라는 말이 있었음. 스스로 만족하느냐는 것. 은민이랑 신경전 벌이고 있지만 너무 감사한 선교. 첫마음처럼 선교 온 것만으로도 좋고 은민이가 예민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 좋았다. 너무 좋았다. 팀의 숨겨진 보화들이 빛을 내는 것 같음. 하나둘씩 빛나는 것 같았다. 너무 좋았다.

바. 왕정숙 - 하나하나 너무 잘하고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 선교 보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몰랐던 거 보고 들으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거 같은데 일본 사람들도 정이 많구나 감동했고, 내가 생각했던 일본과 차이 두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이 많구나.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정말 많은 거 같다는 느낌.

사. 유정란 - 사랑이 많은 나라인 거 같다. 여태 가졌던 일본에 대한 생각 바뀌는 거 같다. 제 삶 바꾸는 계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면서 하나님 사랑 나타내는 사랑 하고 싶다. 많이 배우고 간다. ‘관계’에 관해 몰랐던 선교에서 배웠고, 상대의 잘함과 못함에 대해 서로 다투고 서로 행하지 말아야지 나 자신 채찍질했음. 우리는 뭉치는 단체라는 거 느꼈음. 정말 좋은 선교였다.

아. 정하나 -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었던 거 같아 기분 좋았다. 와야 할 사람 안 와서 걱정했는데, 생각했던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삶속에서 바빠서 그랬던 거 보다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올만에 다 보니까 넘 기분이 좋았다. 찬양 모니터 보고 고야성도들 낮이 빠져 있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무대 보고 있는데 울컥 했다. 감동했고, 순간순간 다들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거 좋았다. 열심히 대화라도 하면서 사람들 소외되지 않게 챙기는 거 보고 너무 좋았다. 기쁨이가 아빠 안 때렸으면 좋겠다.

자. 오춘식 - 요리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 좋았는데, 온천 전도한 분 예배까지 참석한 게 놀라워 좋았고, 선교 원래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닌가 너무 좋았다. 기도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 분이 계속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유정란 : 그 분 주일마다 나오기로 약속했다) 약속이 지켜지기를. (유정란 : 그 분 전화번호 집주소 모두 교환했다). 예배에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차. 이정근 -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그냥 매일이 좋았는데, 원래 가시기로 했던 분들이 다 안가서 취소할까 생각했었다.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지 생각했는데, 선교 매일이 너무 감사했다. 팀원들 너무 좋고, 오키나와 고야 교회 좋고 침엔 어색했는데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시 오는지 느낄 수가 있었다. 제가 비록 말을 잘 못하지만 먼저 다가와서 말 걸려고 해주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다.

카. 송민환 - 점점 갈수록 선교가 너무 즐거운 거 같아요. 처음에 서먹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교제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게 해 준 거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생각. 사회, 직장, 사람들 만나고 같은 목적으로 만나서 선

교활동 한 거 감사한 시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 오늘 **야요이상 일곱시 예배에서 났다**. 그분들 만나게 일년전인가. 처음에 오셨을 때 다리 불편해서, 말을 걸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만나게 되었는데,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연결시킨다는 생각. 케이팝 아이돌 되고 싶다고 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하고, 그걸 위해서 알바도 하고, 3년 뒤 18세 됐을 때 한국에 와서 한다. 면서 자기 고민 자기 생각 얘기한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할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생각. “이런 얘기 왜 하지” 감사한다. 내일 관광하고 마지막 일정 남았는데, **그 분들 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타. 김영산 - 제가 너무 부담감 느끼고 있었는데, 아내가 가자고 해서, 해외 선교 가야 할 거라고 느껴서 이번에 동의 못하고 오게 됐는데, 나 스스로 개인적인 스타일이라 단체생활 적응 잘 못한다. 사람과의 관계 잘 적응 못함. 저의 개인적인 스타일 죽이고 하는데 조금 힘들었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벌써 5일째. 이게 다 하나님 은혜. 사람 대하고 교제하는 거 자체가 적응 잘 안 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앉으면 목사님 옆자리.” 점심도 목사님 옆. 또 이따 저녁도 아버지 목사님 옆. 일본어 거의 못하는데, 영문과 출신. 목사님도 그렇고 홈비지트 그렇고 교회 이미지가 오픈되어 있는듯.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다. 겉으로 그렇고 속으로 다르게 아니라 굉장히 순수함. 목사님 성품 때문이 아닐까. 낮이 익은 분들 가족들(형제들) 그 분들이 그 성품 배우는 거 같다. 원로 목사님도 성품 좋으심. 선교에 대한 열정도 좋으심. 그 분이 개척하셨고, 개척을 뿌듯해하심. 끝까지 여기 잘 적응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파. 백혜경 - **대예배, 저녁예배 때 “인사 나눔”**. 하나같이 반갑게 안아주고 인사. 이게 진짜 교제. 사는 거 같고 좋음. 내성적이라 그런데 정말 보기 좋고. 정말 진실된 모습 보기 좋았음. 히코우미 목사님이 새로 전도하신 분 오니까 업이돼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뭔가 했구나 생각. 목사님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 신명화 - 오늘도 엄청 즐겁고 재밌었음. 예배 세 번 드려서 너무 좋았다. 이번 선교 편하게 있다가 가는 거 같아 조금 죄송한 마음. 이런 때도 있구나 생각.

거. 박설희 - “**나오미 상, 미치 상, 분조 센세(그림 선물)**”가 그림을 선물했다. 개인은 개인. 가족은 세장 붙여 놓음. “야기 미치코상(온천선교한 분) 오셔서 너무 좋았고, 몇 년동안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 오라고 한 거 같음”. 온천에서 사실 야기상한테 백혜경 집사가 사영리 하라고 해서 했음. 선교 잘 돼 가고 있는 거 같지만, 이미 5년 째 들어서고 오래 본 사람들 시선에서는 언제 여기가 끊겨도 할 말 없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터닝 포인트가 된 거 같아서 기뻐다. 홈비지트 가서 이번선교 제목인 “**첫사랑**” 생각났음. 그 때 생각도 많이 나면서 되게 좋았음. 도쿄에서 패딩 있고 덜덜 떨면서 했는데, 내일도 시간 있겠지.

너. 김미수 - 이런 모임 두번째. 나오니까 좋습니다. 엄마들 따로, 남자들 따로 자보니까 부부끼리 싸우지 않네요. 같이 따로 잡아줘서 힘들지 않네요. 남편한테 짜증 한 번밖에 안 냄.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군요. 남편은 절대 화 안 냄. 유정란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저를 만 들어주시는 거 있었고.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나도 그런 시기 밝고 가는 과정. 잘 갈 수 있겠구나. 지난 차수에 은수가 일본어 간증할 때는 잘 못알아들었는데, 이번에 한국어 간증이 너무 좋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구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참 힘든 학교 생활 하는구나. 아무

튼 감사했고. 안 보이게 선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제가 눈에 띄면 안 보이는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 기쁨이한테 화를 안낼 거 같지만. 내가 화를 냄. 하나님이 유정란 권사님 통해서 완전 저를 만져주심. 화낼 이유가 없다. 매일 매일 정근 형제처럼 좋았어요.

더. 최준기 - 끝났구나. 관광도 안전하게 남아 있지만. '쇼'가 예배 때 피피티하는 모습 보고. 피피티 하는구나 예배때 헌금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전에 못 봤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 들었다. 전에는 쇼가 사무실에서 떨고 구토하고 그랬는데. 다 좋았어요. 어린이 예배 때는 비어있는 느낌. 낮 예배는 사람 많음. 저녁예배 때 가나홀에 기쁨이랑 잠시 있었는데, 신나게 찬양하시고 좋았을 텐데. 되게 좋았음. 안에서 보았을 때하고 밖에서 보았을 때 모두 좋았음. 예배 드리는게 좋았음. 혼자 있으면 외로웠을텐데, 이지형 집사님 왔다갔다 해줘서 고맙습니다. (유정란 : 목사님 얘기해줬다. 밖에서 보고 있다.) 모든 곳에서 예배 볼 수 있도록 했다. 집사님 누가 왔을까. 새신자 오셨는데 얘기하고 그랬다. 부족하고 급조한 것도 있는데,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지형- 아기 데리고 있는데 궁금한게 되게 궁금했다.)(정하나 - 그림자 비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았다.)

러. 백혜경(추가) - 어제 새벽예배 못 드렸다. 팀장님 요한 복음 무지 감동. 말씀에 대한 애기 깨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 말씀같이 준비하셔서 기막힌 말씀 전해 주셔서 참 은혜로웠음. 어저께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타이밍 놓쳐서 너무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몰랐던 얘기들 알게 되었다. 나도 몸이 많이 아파요. πππ

9. 광고

새벽예배 없음. 유치원 내일 오픈. 씻을 때 게스트하우스 이용.

10시 출발해서 먼저 밥을 먼저. 목사님 예약 해서 간단하게 먹고 츄라우미 간다.

7시 그전에 출발.

이동시간 1시간 30분

내일도 관광 끝나고 감사회 하면 엄청 늦게 끝남.

최대한 짐 꾸리고 정리해서

09:00에 모임. 감사회 때 특송.

간증 - 모모꼬상, 홈페이지트 했던 분 중에서 간증 두 분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청년, 이지형 집사님 등. 간증 두 분 정도 해주면 좋겠다.

(이번 선교 - 원래 교제와 훈련).

츄라우미 -> 아메리칸 빌리지(이온은 있음. 쇼핑몰 근처에 해변도 있고.)

감사회는 저녁 7시 - **백에 봉지 담아서 선물 만들어야 함.** 찬양, 간증. 선물 주면, 선물받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 나눠주고 기도하고, 재미있게 얘기하다 보면 몇 시에 끝날지. 내일은 사람들 보내기도 힘들.

9. 기도제목

가. 야기상. 켄타. 히사시. 쇼. 교회 부모님. 서운정 선교사님. 유지.

다운이. 은수, 백혜경 집사님. 아픈 분들 위해 기도.

오늘 만난 분들 만난 분 중에 기억나는 분들 위해 기도.

2. 하나. 병욱(월요일 출발), 명화(화요일 출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